



내외소식

교회의 커다란 연례 행사중의 하나인 청소년 대회가 서울 스테이크를 비롯 한국 선교부 산하 지방부에서 개최 되었다.

서울 스테이크 청년 대회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1973년 7월 26일부터 4 일동안 강원도 강촌에 위치한 장춘 중학교에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150여명이였다.

용산 역을 출발한 형제 자매들은 10시에 강촌에 도착, 주변 정리와 함께 이남선 형제의 개회 선언으로 대회의 막을 올린 이번 대회에서 이들은 캠프 송,

교회 청소년의 야외 활동을 통한 단체 생활, 심신 단련, 회원간의 우정 증진, 자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 대회는 참으로 많은 젊은이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하다.

대회는 운동 모임, 복음 공부, 지도자들의 특별 말씀 등으로 진행되어 청소년은 이 대회를 통하여 보다 더 굳은 간증과 튼튼한 신체와 친구들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대회 준비 역원들은 참가 청소년에게 훌륭한 경험을 안겨주기 위하여 1년간에 걸친 준비를 해왔다 한다.

게임, 신학 세미나, 무용, 체육 대회, 경보대회, 카니발 및 무도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고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고.

촬영: 신 재구





신학연구원 소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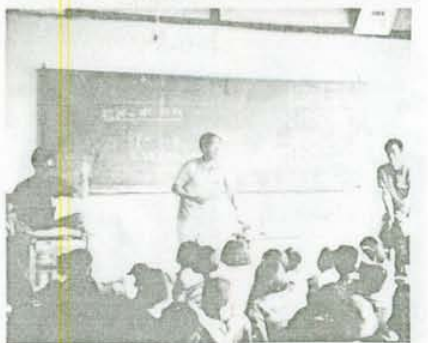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강촌에 있는 장춘중학교에서는 무려 157명이라는 많은 소년 소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 대회가 열렸다.

신학 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의 참가 자격은 12세에서 18세까지의 소년 소녀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만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경전 퀴즈 대회, 신학 세미나 체육 대회, 경보 대회, 간증 모임, 캠프 화이어등 다채로운 모임을 가졌으며 야외 활동을 통한 신체 단련 및 단체 생활, 경전 지식, 스테이크내의 청소년간의 친목 도모등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촬영: 신 재구





경기 지방부 청소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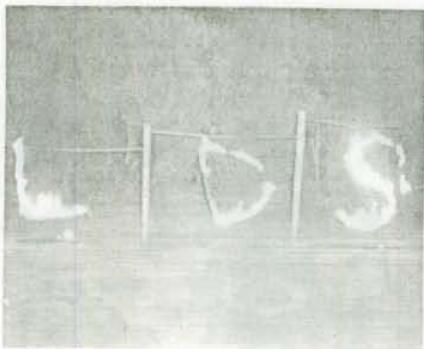


경기 지방부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도 안양 청계 덕창 국민학교에서 제1회 청소년대회를 46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대회는 개회 순서에 이어 민속 무용과 노래 배우기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혼성 축구 시합과 신상 기도회, 경보 대회, 무도회, 백운 저수지 돌기 등은 참가자 외에는 아무도 그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자랑이 대단했다.

특히 LDS MIA의 정화로 대회는 절정에 달했다. 마지막날 갖은 새벽 기도회는 이번 청소년 대회를 더욱 빛낼 수 있었던 것 이었다고…… 또한 장소를 제공해 준 덕창 국민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교직원은 직업을 아쉬워 하며 다음 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중부 지방부 청소년 대회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중부 지방부에서는 중



호남 지방부 청소년 대회

호남 지방부에서는 청소년 대회를 섬진강변 모래 사장을 끼고 있는 경남 하

외국인 국악, 무용 경연대회에서 물론 선교사 최우수상 획득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악, 무용, 가요 경연 대회가 지난 7월 3일 오후 1시

일문 유치원생들, 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획득

경남도 계룡산 기슭 학봉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55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에서는 지부별 특기 자랑,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으며 백일장에서는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부의 김 봉균 형제가 장원에, 그림 그리기에는 대전지부의 윤 세형 형제가 1등을 차지했다.

대별 시상에는 니파이, 알마, 물론,



동음 흥룡 국민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약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은 영적인 말씀, 성구 암송 대회, 개인 달성 프로그램 세미나, 지부 대항 배구 대회, 가정의 밤 연극, 캠프 화이어, 무용의 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 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날 가진 간증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형제애를 나누고 간증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부터 삼일당에서 열렸다.

이 경연 대회에서 프레스턴 장로와 제닝스 장로팀은 바지 저고리 차림에 기타를 치면서 벽오동을 불러 가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들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떨어진줄 알았다며 최우수상을 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의 기사는 한글 및 영문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바 있다.

서울 와드에 위치한 일문 유치원에서는 지난 1학기동안 그린 그림 송씨를 가지고 전국 학생 미술 작품 공모전에 참가하여 단체 우승기와 최우수상의 트로피 및 8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일문 유치원생의 슬기로움을 자랑하였다.

이들의 지도 교사로서는 김 양자 자매와 김 동래 자매가 수고해 주셨다.

모로나이 4개대 중에 니파이 대가 종합 우승으로 베드로 상을 차지했다.

특히 둘째날의 계룡산 등산은 동학사를 거쳐 남매탑을 돌아오는 코스였으며 마지막날 가진 간증 모임에서는 뜨거운 간증이 그치지 않자 준비 위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또한 유 병희 상호부조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자매가 직접 취사를 맡아 주었다.

